

지역 매아리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쉽터운영 선진 견학 및 힐링 나들이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는 14일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 35명과 함께하는 쉽터운영 선진 견학 및 가을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후 효율적인 쉽터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쉽터를 이용하게 될 치매환자와 가족이 쉽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주시 치매안심센터 선진 견학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매의 위험 요인인 우울감을 적절히 관리해야하는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어르신들과 돌봄 부담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하여 여수 힐링 나들이 시간을 마련하였다.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으로 여수 엑스포 아쿠아플라넷 관람, 케이볼카 체험, 돌산 공원 구경 등을 진행하였다. 평소 치매환자와 함께 여행을 하기 쉽지 않았던 치매환자 가족들은 지쳐있던 일상에 활력을 불어준 행복한 시간이라고 전했으며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어르신들도 치매 인지자극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수료 후 아쉬웠던 마음을 달래준 나들이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해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신중년 일자리 적극 지원

완주군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4일 완주군은 최근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전북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와 재취업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신중년들이 참여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 구직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구직 노하우를 제공했다.

전문 컨설턴트가 신중년 특성에 초점을 맞춰 구직 교육을 진행하고, 목공 전문 예비 사회적기업 대표가 목공과 관련된 경험을 풀어내며 직업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을 마친 한 참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막연한 상황에서 오는 교육이 많은 용기를 주었다"며 "돌아가는 길에 완주군청 일자리 지원센터에 방문해 구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려한다"고 적극적 구직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완주군 내의 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 인구는 약 2만2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14일 국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시정 주요사업의 2020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국가예산확보 막바지 총력

박준배 김제시장, 국회 방문 시정 주요사업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건의 등 지원 요청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2020년 국가 예산 심의가 본격화된 국회를 찾아 시정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분주한 행보를 펼쳤다.

14일 국회를 찾은 박준배 김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논 타작물 재배 일환으로 과잉 생산된 논콩에 대한 가공산업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시정 주요사업의 2020년 국가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다.

또한 오후에는 국회 예결소위 심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결소위 소속

위원실을 찾아 2020년 국가예산사업 중 상임위 단계 증액사업의 삭감방지 및 미반영 사업의 예산 추가 반영에 집중했다.

먼저 전철철 위원, 송갑석 위원, 김현권 위원 등 예결소위 전 위원실을 방문하여 시정현안사업들의 내년도 예산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농해수위 상임위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우리콩 가공 기반구축 사업(91억)'과 '국립간척지 농업연구센터 건립(20억)' 사업에 대한 예결소위 심사단계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을 요청하였으며,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금강지구 영농편익 증진사업'과 김제시 특장차산업 확대의 토대가 될 '백구 제2특장차 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어 안호영 국토위 의원실을 찾아, 2020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과 함께 '민경강 고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중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북도와 지역자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제시보건소는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맞이하여 김제 전통시장 일원 및 지평선 아카데미 행사장에서 당뇨병의 날 기념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계 당뇨병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1991년 세계 당뇨병 연맹과 세계보건기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제정한 날이다.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이 높아져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 나오는 질병으로 신장, 망막 등 미세혈관 합병증과 관상동맥, 뇌졸중 등 혈관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당뇨병에 노출된 지 10여년이 지나면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 운동, 적절한 치료 등 건강생활실

천으로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김제시보건소장은 매년 실시하는 '세계 당뇨의 날'을 기념하여 "당뇨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더라도 철저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으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비만과 복부비만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체내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즉 적절한 식생활과 규칙적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속도

완주군이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완주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과 지역대표,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중간보고회에는 지역주민과 산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 1073ha에 계획 중으로 군은 임도개설 등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산림내 숲가꾸기, 수확별채를 통한 목재생산과 수종갱신 조립,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이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완주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과 지역대표,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중간보고회에는 지역주민과 산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 1073ha에 계획 중으로 군은 임도개설 등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산림내 숲가꾸기, 수확별채를 통한 목재생산과 수종갱신 조립,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9년 김제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운영되는 하반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위한 기본교육 및 관련 제도, 정책 설명과 인사, 노무 등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한 실무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우수한 사회적기업인 황수연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사)산소리마을에서 참여해 각 사회적기업 대표들의 성공 노하우와 경험을 소개한다.

아울러 아카데미 수료자 중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기초·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세부일정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가 11월 21일~22일, 28일~29일 4회, 20시간 과정으로 진행

되며, 아카데미 수료생 중 사회적경제기업 전환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2월 4일, 11일(오후2시~6시) 2일간 기초·맞춤형 컨설팅이 이어진다. 행사장소는 고용복지+센터 내 고용·복지공동교육관 1층 교육장이며, 모든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희망자는 11월 20일까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sh1127@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과 경제지원담당(063-540-3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협약을 체결하여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 공동급식은 올해 7개소로 확대해 완주공동급식센터에서 우리 농산물을 마을에 직접 제공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급식먹어요"

완주군, 영농철 마을공동급식 활발 ... 주 2회씩 5주간

수확기를 맞아 완주군의 각 마을에서 공동급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영농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주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가사와 영농활동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업이다.

특히, 완주군의 공동급식은 완주공동급식센터에서 우리 농산물을 마을에 직접 제공하며 품질을 높이고 있다. 총 40여 가지의 엄선된 재료가 주 2회씩 5주간 총 9회

마을 급식장소로 배송된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커지면서 지난해 상하반기 각 57개 소였던 사업은 올해 7개소로 확대됐다. 현재 군은 7개소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급식종사원 인건비와 부식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바쁜 영농철 공동급식을 통해 농업인의 식사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로 농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Im-sil Cheese' (임실치즈) featuring a large image of various cheese products and a background of a rural landscape with a church. Text includes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and '임실 N 치즈'.